

## 메이지의 폐불훼석(廢仏毀釈)이 낳은 불교 승려의 아카데미즘과 탐험 정신

오노다순조(小野田俊藏)

최경진 역

\* 이 번역문은 동국대 김호성 교수 편집·발행 잡지, 『일본불교사 공부방』 제5호(2008년 3월)에 실렸습니다(pp.102-121).

왕정복고를 주창하는 메이지유신에 의해서 메이지정부가 성립되었다. 개원(改元)된 것은 9월 8일(양력 1868년 10월 23일)이지만, 그 반년 전의 1868년 3월 28일(양력 1868년 4월 20일)에 ‘신불판연령(神佛判然令)’이 포고되었다.<sup>1)</sup> 이것은 불교를 포함한 신도 이외의 외래의 종교의 영향을 배제하고, 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학(國學)의 사상체계에 의해 일본과 천황제를 규정하며, 독자의 근대화를 이루려는 메이지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소위 '폐불훼석(廢仏毀釈)'이라는 사태다.<sup>2)</sup> 이 폐불훼석으로 승려들은 낭패를 보게 된다. 이것을 증명하며,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유신 초기에 폐불에 대한 논의를 듣고 승려들은 깊은 비탄에 빠졌다.'<sup>3)</sup>라며 개탄했다.<sup>4)</sup>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폐불훼석'이라고 하는 사태 전에는 일본에 '불교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부처'에 대한 신앙-이것은 '신(神)'에 대한 신앙과 많은 면에서 융합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분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과 그 신앙을 공유하는 집단일 뿐이었다. 즉 엄밀하게 말하자면 '신도'라는 카테고리도 표현될 집단조차도 없었던 것이다.<sup>5)</sup>

불교 신앙자 집단이 취한 대책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은, 정토진종(淨土眞宗)에 속하는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와 니시혼간지(西本願寺)에 의해서 실행되어졌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메이지 정부에 자금을 대부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다.<sup>6)</sup> 반면

1) 「神佛判然令」太政官達第196号, 明治元年(1868)3月28日. 이것에 따르면 같은 해 4월 28일에 '神佛 분리 실시를 엄중히 해야 한다는 승'이 太政官仰226号에서 공포되었다.(『明治以後宗教關係法令類纂』, 東京第一法規, 1968, p.737참조.)

2) 村田安穂「明治維新廢仏毀釈の地方的展開とその特質について」『論集日本仏教史 8 明治時代』池田英俊編, 雄山閣出版, 昭和62年, pp.69-87.

3) 『僧侶論』(『福澤諭吉全集』第8卷), 岩波書店, 1960, p.31.

4) 후쿠자와의 불교관에 대해서는, 小泉仰「福澤諭吉-『百話』における仏教への接近-」, 峰島旭雄編『近代日本の思想と仏教』東京書籍, 昭和57年, pp.234-249를 참조.

5) 1877년에 内務省은 社寺局을 설치하여 불교의 모든 支派에 대한 규제를 각 관장들에게 위임했다. 그 시점에 서부터 종교적인 支分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본격적으로 '교단'이라는 것이 의식된 것은 教導織이 폐지된 (1884년 8월 11일의 太政官布達 제19호) 후라고 생각된다.

6) 히가시니시혼간지는 무진전쟁을 위한 채권발행으로서 정부에 3만냥 이상을 제공했다. 니시혼간지는 또한 막대한 양의 현금을 홋카이도의 개척을 위해서 기부했고, “떨어지는 지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원조의 일환으로서, 1868년 여름 새 정부에 의해 발행되었다.”: James Edward Ketelaar, *Of Hereicks and Martyrs in Meiji*

에 메이지 정부 측에서는 반(反)불교적인 정책에 대한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강한 항의운동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토종(淨土宗)에 속하는 조조지(増上寺)의 후쿠다교카이(福田行誠, 1806-1888)와 진언종(眞言宗)의 샤쿠운쇼(釈雲照, 1827-1909) 등은 제종동덕회맹(諸宗同德會盟)과 십선회(十善會) 등을 결성하여 불교 옹호 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의 주된 논조는 불교도로서의 뚜렷한 자기 인식의 촉진에 있었다.

메이지정부는 신기관(神祈館)에 대한 대체로서 1872년에 설치된 '교부성(敎部省)'에 신사와 사원의 건설·폐지의 권한을 주었다.<sup>7)</sup> 나아가 정부는 신주(神主)뿐만 승려도 임용하여 교도직(敎導職)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신주와 승려라는 신분이 소멸하고 교도직이라는 관직으로 일원화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그리고 신도들과 불교도들을 가르치는 대교원(大敎院)이 조조지에 설립되었고, 여기서 후쿠다교카이가 교장으로 되었다.<sup>8)</sup>

### 서구에서의 유학과 불교교육기관의 설립

불교관계자(즉 승려집단의 일부)는 서구로 사절단과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했다. 관계자들이 피하는 것은 근대화의 표본인 구미의 종교적 상황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으로써 불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 존재를 '불교'라는 근대적 종교의 하나로서 확립시켜 나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쿠라(岩倉)사절단의 일원인 키도타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의 권유에 의하고, 오타니코즈이(大谷光瑞)의 아버지인 오타니코손(大谷光尊)이 결단을 내려서, 니시혼간지 문주의 대표로서 시마지모쿠라이(島地黙雷, 1838-1911)가 1872년에 유럽의 서부로 파견되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히가시혼간지의 이시카와슌타이(石川舜台, 1842-1931)도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법주(法主)인 오타니코에(大谷光榮)와 함께 1873에 떠났다.<sup>9)</sup> 이시카와는 그러한 유럽과 미국 시찰경험에서, 범어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불교학에서 일본의 불교를 살릴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1876년, 오쿠넨지붕유(憶念寺文雄)라는 청년을 영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그는 바로 훗날 저명한 불교학자로 성장한 난조붕유(南条文雄, 1849-1945)이다. 그는 카사하라켄쥬(笠原研寿, 1852-1883)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막스뮐러(Max Müller, 1823-1900) 아래에서 공부했다. 카사하라는 그의 이념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별세하고 말았다. 그러나 후에 난조붕유의 소개로 코야야시준(小林洵)이나 타카쿠스준지로(高楠順次郎)로도 알려져 있는 사와이준(沢井洵, 1866-1945)이 같은 막스뮐러의 지도를 받아 대성을 이루게 되었다. 난조붕유는 1884년에 귀국하여 1897년부터 도쿄테코쿠대학(東京帝國大學, 지금의 도쿄대학)의 강사로서 일하게 되었고, 또한 1884년 10월부터는 도쿄(東京)의 오타니교코(大谷敎校, 지금의 오타니대학)에서 영어와 범어를 가르쳤다.<sup>10)</sup> 이 오타니교코에서 오구루스코쥬(小栗栖香頂)도 불교의 종파와 동향에 대해서 가르쳤다. 1877년에는 일본 최초의 티벳학 저서, 『라마교

*Japan*, Princeton University, 1990, pp.72-73.

7) 이 발표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70-71, 95-101.

8) 吉田久一, 「大敎院の設立と政敎關係の混亂」 『日本歴史』 111号, 昭和32年, pp.25-32.

9) 福嶋寛隆, 「海外敎狀視察の歴史的意義」 『論集日本仏敎史 8 明治時代』 池田英俊編, 雄山閣出版, 昭和62年, pp.89-110.

10) 「南条文雄先生年譜」 (『大谷學報』, 第九卷第一號, pp.192-195)에 의하면 난조붕유는 3월에 런던을 떠나 5월에 요코하마로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13년에 오타니 대학이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겨왔다.

연혁(喇嘛教沿革』을 발간했던 이도 오구루스였다.<sup>11)</sup>

시마지모쿠라이, 이와쿠라토모미(岩倉具視, 1825-1883)와 같은 연구자들은 유럽 유학 후에 많은 건백서와 논문을 냈다.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구하는 목소리가 점차로 확산되어, 1875년 5월에는 대교원이 해산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메이지정부는 불교도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신교(信教)의 자유를 보장했다. 1877년 10월에는 마침내 교부성이 폐지되었다. 불교도들은 일단 안심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 이번에는 기독교의 선교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불교계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운동에 힘을 쏟게 되었다. 그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는, 오타니교코 출신으로 도쿄대학에 진학했던 이노우에엔료(井上門了, 1858-1919)이었다.

이노우에엔료는 『진리금침(真理金針)』, 『불교활론(仏教活論)』 등을 지었으며,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여 불교의 이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진리금침』은 1882년에 출판된 것인데, 그것의 원본이었던 원고는 『명교신지(明教新誌)』라는 불교신문에 연재되었던 것이다.<sup>12)</sup> 당시 이노우에는 아직 20대의 철학 청년이었다. 이러한 그의 논지는 반(反)기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래 불교의 모습에 대한 거친 비판과 반성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불교는 이성적인 학문에 적합한 종교이며, 거기에는 근대적인 불교학과 서구의 자연과학의 지식에 의한 뒷받침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1887년, 그는 지금의 토요대학(東洋大学)의 전신(前身)인 철학관(哲學館)을 창설했다.<sup>13)</sup> 일본인의 티벳 탐험의 선구자였던 20대 중반의 카와구치에카이(河口慧海, 1866-1945)는 이 철학관에서 공부했었다.<sup>14)</sup>

1881년에는 니시혼간지가 보통교교(普通教校,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혼파후츠코本派普通校)를 창건했는데, 이 학교는 당시의 불교계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승려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승속공학(僧俗共學)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미 교토(京都)에서는 1875년에 니지마조(新島襄)가 도시샤영학교(同志社英学校)를 설립했다. 정규 과정이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게다가 이 니시혼간지의 보통교교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수양단체 ‘반성회(反省會)’가 있었다. 이 모임에는 티벳 탐험 중에 객사한 노미유타카(能海寬, 1868-1901?)와 젊은 날의 타카쿠스준지로가 인쇄자로서 코바야시준이라는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그 모임의 잡지인 『반성회잡지』는 후에 『중앙공론(中央公論)』으로 개명되었고,<sup>15)</sup>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가장 유명한 정기간행물이다.

히가시혼간지에서는 1879년에 칸렌조(貫練場)라고 알려진 교육기관이 칸렌교코(貫練教校)로 개명되어, 이것이 1896년 신슈대학(真宗大学)으로 발전해갔다. 그 후 신슈대학 자체는 도쿄의 스가모(巣鴨)로 이전하여 1903년에는 학감(學監)으로서 난조봉유를 초청했다. 신슈대학은 그 후, 교토에 남아 있던 기관 ‘타카쿠라다이가쿠료(高倉大學寮)’와 병합되게 되어 신슈오타니대학(真宗大谷大学)으로 개칭되었고, 1913년에 교토의 카미가모코야마(上賀茂小山)의 현재 주소로 이전했다.

11) 오구루스의 지식은 19세기 중엽에 활약했던 사상가 웨이유안(魏源)의 『聖武記』 제5, 「撫綏西藏記」 및 「後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구루스의 저작도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난조봉유와 함께 근대 불교학의 관점에서의 티벳 조사의 필요성이 의론되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다.

12) 井上門了, 『真理金針初編』, 明治文化研究会編 『明治文化全集』 第十九卷, 日本評論社, 1967.

13) 芹川博通, 「明治中期の排耶論-井上門了を中心として-」 『論集日本仏教史 8 明治時代』 池田英俊編, 雄山閣出版, 昭和62年, pp.163-188; 三宅守常, 「仏教の世俗倫理への対応-井上門了の修身教会設立をめぐって-」 『論集日本仏教史 8 明治時代』 池田英俊編, 雄山閣出版, 昭和62年, pp.289-308.

14) 奥山直司, 『評伝河口慧海』, 中央公論社, 2003.

15) 『中央公論』으로 개명한 것도 타카쿠스의 아이디어였다. 1899년12월20일의 호카쿠젠쇼(宝閣善教)씨의 일기에 있다. (実藤恵秀, 『中国留学生史談』, 第一書房, 1981, p.64)

니시혼간지의 보통교교도 1900년에는 학규를 개편하고, 붓교대학(仏敎大學)·붓교고등중학(仏敎高等中學)·붓교중학(仏敎中學)의 세 학교로 나누어 진 후, 1902년에는 붓교대학을 교토의 붓교전문대학(仏敎專門大學)과 도쿄의 타카나와붓교대학(高輪仏敎大學)으로 분립시켰는데, 1904년에 다시 통합되어 현재의 류코쿠대학(龍谷大學) 오미야(大宮)캠퍼스에 자리를 잡았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본인 불교도들의 티벳에 대한 강한 관심의 원천은 아마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메이지유신이라는 사태에 당면하여 그들이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던 ‘(종지를 초월한)불교’에 대한 견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불교’의 위기에 당면하여 ‘불교도’가 취한 대책은, 근대적 비판학에 견줄만한 철학을 갖춘 ‘근대불교학’ 확립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벳 탐험의 주된 목표는 오로지 ‘통불교(通佛敎)’ 연구를 문헌적으로 뒷받침하는 범어·티벳어 불교문헌의 수집이었다.

### 중국에의 영향 그리고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일본에서의 메이지유신이라는 격동은 결과적으로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淸은 건국 이래 기본적으로는 만주인과 몽골인이 연합하여 한인을 통치하고 티벳과 이슬람교도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었다. 그러나 1884년 신지양성(新疆省)이 설치되어, 한인을 장관에 임명한 지점부터 이 정책은 점점 변경되어, 만주인은 스스로 연합의 상대편으로서 한인을 택했다. 이것은 즉 티벳 불교에 대한 태도를 갑자기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윽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일어난 청일전쟁(1894-1895)에서 청은 일본에 패했다. 청일전쟁에서의 패전 후, 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이 먼저 착수했던 서양 근대문명의 섭취를 구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패전의 원인이 그것에 있었다고 보게 되었다.

1896년 6월에는 13명의 중국인 일본유학생이 일본으로 갔으며, 그 후로도 계속하여 중국인 일본유학생이 늘어갔다.<sup>16)</sup> 늘어난 유학생을 원조했던 지식인 중에는 만년에 『불학십팔편(佛學十八篇)』이라는 불교학 연구서를 지은 량치차오(梁啓超, 1827-1929)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일본 방문 자체는 정치적 망명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는 일본에서의 견문을 바탕으로 신중국의 교육문제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힘을 주어 주장했다고 한다.<sup>17)</sup> 당시의 저들 일본유학생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육제도확립의 염원은, 그러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묘사당(寺廟祠堂)을 학교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불교교단에 있어서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1898년 3월에 양무파(洋務派)의 관료였던 후광(湖廣) 총독인 장즈둥(張之洞, 1873-1909)은 『권학편(勸學篇)』을 지었다.<sup>18)</sup> 이것은 ‘중학(中學)을 체(體)로 하고, 서학(西學)을 용

16) 清水稔, 「中国人留学生と日本の近代」 『アジアのなかの日本』 佛敎大學綜合研究所紀要第二号別冊. 그리고 小林共明, 「留日学生史研究の現状と課題」 (辛亥革命研究会編 『中国近代史研究入門』 汲古書院, 1992)에서는 관련된 연구사를 모아두었다.

17) 匡亞明主編, 『張之洞評伝 (中国思想家評伝叢書)』 南京大学出版社, 1991. 第四新式教育的創設 pp.135-144.

18) 장즈둥의 책은 또한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Jérôme Tobar, *K'iu-en-hio p'ien: Exhortation à l'étude par S. Exc. Tchong Tche-tong*, Variétés sinologiques, no 26(Shanghai: 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Orphelinat de T'ou-sé-we, 1906).

(用)으로 한다.’를 기본으로 하는 사고에 기초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일본으로의 유학생 파견은 그 후 청조의 유학생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사묘(寺廟), 사전(寺田) 등의 재산 중에 10분의 7을 학당의 용으로서 제공하고, 나머지를 승도(僧道)의 선식(膳食)의 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sup>19)</sup>

장즈동의 주장에 의해 1899년 1월에는 40명, 3월에는 20명, 11월에는 80명이 일본으로 갔다. 그들 중에 문과 학생들은 1898년 6월에 창설된 ‘일화학당(日華學堂)’에 입학했다. 창설자는 니시혼간지 보통교교 출신으로 난조의 뒤를 이어 막스뮐러 아래에서 불교학을 연구하고 귀국했던 도쿄테코쿠대학 교수 타카쿠스준지로였다.<sup>20)</sup>

### 몽골과 티벳에 대한 중국의 정책

1905년에 청은 과거 시험을 정식으로 폐지하고, 러일전쟁을 거친 1906년부터 개시된 관제개혁에서는 몽골과 티벳에 대한 정책개편의 필요성에서 종래의 불교 승려에 대해서 행해졌던 우우(優遇)정책을 없앴다. 그때까지 청조에서는 ‘이변원(理藩院)’에서 몽골과 티벳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 책임자였던 숙(肅) 황자가 내몽골의 왕가에 새로운 군대의 배치와 학교와 위생시설의 설치 등의 신정책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이곳으로 갔다.<sup>21)</sup> 내몽골 왕가의 대부분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몽골에서는 이 움직임에 반발이 심했다. 일련의 정책전환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한인의 이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다. 그 결과 외몽골에로의 이주가 허락된 한인이 늘어났고, 반면에 몽골인들의 목초지가 극감하게 되었다. 한인들의 증가 때문에 외몽골의 왕가와 불교계에서는 반한(反漢)감정이 거세지게 되었다. 이 감정은 한인 이민자와 상인을 습격하는 ‘마적(馬賊)’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그 마적을 구성하고 있던 이들은 바로 목초지를 빼앗긴 유목민들이었다. 이후에 일어난 몽골 독립운동에 이들 내몽골의 마적과 비적(匪賊)의 리더였던 닥터흐타이지(Togtokh Taiji)와 바부자프(Bavuujav)도 가담하고 있었다.<sup>22)</sup>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 직후에 티벳 태생의 쟈춘담파(Jebtsundampa) 8세<sup>23)</sup>를 추대한 몽골 독립운동이 일어나 1911년 말에는 독립 선언을 하지만, 수개월 후에는 청조 자체가 해체되어 독립 운동의 상대가 중화민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조에서는 티벳-몽골의 문제는 ‘이변원’에서 관리되었는데, 청조가 멸망한 후 민국(民國) 원년(1912), 중화민국 내무성 중에 ‘몽장사무처(蒙藏事務處)’가 설치되어 군센노로브(Gunsen Norov) 왕(내몽골의 하라친Kharchin)이 초대 통장(統長)으로 되었다. 이 몽장사무처는 이윽고 ‘몽장사무국(蒙藏事務局)’으로, 다시 ‘몽장원(蒙藏院)’에서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로 이름을 바꾸었다.<sup>24)</sup>

19) 釋東初, 「中國佛教近代史」上卷, p74.

20) 實藤惠秀, 『中國留學生史談』第一書房, 昭和56年, pp.50-102.

21) Chia Ning, *The Li-fan Yuan in the Early Ch'ing Dynasty*, Ph. D. diss, John Hopkins University, 1992.

22) 일본의 카와시마나와(川島浪速)가 계획하고 있었던 만몽독립운동으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있었다고 한다. ; 宮脇淳子, 『モンゴルの歴史』東京, 刀水書房, 2002.

23) 그의 삶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쟈춘담파 7세의 과업을 물려받은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Fabien Sanders, "The Life and Lineage of the Ninth Khalkha Jebtsun Dampa Khutukhutu", *Central Asiatic Journal* 45.2, 2001, pp.273-303, 특히 pp.289-292를 참조할 수 있다.

24) 이상하게도 이들 조직은 지금까지도 타이완 정부 내에 존속하고 있다.

이 시기에, 티벳에서는 부리아트(Buriat) 몽골승려인 도르지에프(Dorjiev, 1854-1938)가 달라이라마 13세(Thub bstan rgya mtsho, 1876-1933)의 정책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상향의 삼발라는 러시아에 있으며, 총카파의 전생(轉生)인 러시아 황제가 언젠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 거대한 불교제국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선전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달라이라마는 러시아에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영국의 라싸(IHa sa)침공에 대피하여 달라이라마가 1904년 몽골에 1년간 머물렀을 때, 그는 도르지에프를 러시아 황제에게로 파견하여 티벳으로 군사원조를 요청했다.<sup>25)</sup> 결과적으로 티벳은, 이전의 속국 시스템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티벳의 자주권을 두고 거래를 한 만주국의 무정한 외교의 희생자가 되었다. 달라이라마는 그 후 몽골을 떠나 압도(A mdo, 中. 청해青海)의 쿵뽐(sKu 'bum) 승원에 체재했지만 1907년 영리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의 희망은 영리의 대답에 있었는데 그의 기대가 무너졌다. 그는 베이징(北京)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10월에 서태후(西太后)와 광서제(光緒帝)를 만났다. 그는 중국 측에게 외국이 티벳을 침략해 오는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sup>26)</sup> 그러나 앞서 말한 청의 티벳에 대한 갑작스런 정책적 변화 때문에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하기 전에 잠시 동안 라싸에 돌아갔다(1909년 12월 25일). 인도 망명 후 그는 다시 1913년에 라싸로 돌아갔고, 몽골에 이어서 티벳의 독립을 선언했다.<sup>27)</sup>

1910년, 청조가 몽골에 대한 한인의 이주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몽골인지구에서는 한인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되었다. 게다가 1911년에는 후베이성(湖北省)에서 일본유학 경험이 있는 군의 군사들이 지휘하는 ‘우창봉기(武昌蜂起)’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몽골은 이 직후에 쩌춘담파 8세를 황제로 추대하여 1911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원조를 요청했던 러시아는 대외적인 여러 구속에 묶여져 있어, 외몽골지역의 자치권이라는 한정 안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몽골 독립에 반대했다.

1913년 1월에 몽골은 마찬가지로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티벳과 상호 간에 독립 승인을 했고, 이후 잠시간 양국 지도자의 왕래가 늘어나게 되었다. 1917년에는 러시아혁명이 발발했고, 1922년에 소비에트연방이 성립하였다. 1924년에 보그도한(Bogdo Khan) 즉 쩌춘담파 8세가 죽고, 같은 시점에 제7회 몽골인민혁명당대회에서 우파(右派)가 추방되어, 몽골인민공화국이 탄생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몽골 국내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몽골에서는 교양인의 대부분이 승려였는데, 그 승려를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조차 경전독송을 위해서 승려들이 쓰고 있던 티벳 문자에 의해서 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30년에는 불교 승원 등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 등 재산이 몰수되었고, 하급승려들이 강제 환속되는 등 극좌(極左)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몽골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승려는 당연히 티벳과의 연계 속에서 저항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판첸라마는 몇 번이나 몽골지구를 방문하여 몽골지구에서의 신뢰가 두터웠고, 특히 내몽골의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의 관동군(關東軍)이 만주국을 건국했던 1932년경, 몽골에서는 불교도의 반(反)정

25) 이 상황에서 도르지에프는 Bhāvanākṛāna와 같은 몇몇의 불전 필사본을, 달라이라마로부터의 선물로서 피터스버그(Petersburg)신부를 통해 러시아 황제 차르 니콜라스(Tsar Nicholas) 2세에게로 선사했다.

26) Laurent Deshayes, *Histoire du Tibet*, Japanese tr. By Imaeda Yoshiro, pp.203-230: Premen Addy, *Tibet on the Imperial Chessboard*, Sangam Books Limited, Calcutta 1985, pp.204-207.

27) Tom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London: Zed books, 1987), 특히 제3장

부활동을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내몽골지구를 포함한 청조시대부터 폭넓은 신앙이 집중되었던 쟡카 후토크토(ICang skya Khutukhtu, 1891-1958)의 환생자는 청조붕괴 때에 아직 소년이었지만, 그 측근들이 정치적인 경향이 강해서, 쟡카 후토크토는 산시성(山西省)의 군벌(軍閥)이었던 옌시산(閻錫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1929년 1월에는 옌시산이 위의 몽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전후로부터 산시성의 한족농민들이 내몽골에 이주하여 개간함에 따라 몽골족의 이익이 감소해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당의 내부분열로 몽장위원회의 위원장이 1930년 8월에 위구르족의 지도자인 마푸샹(馬福祥)으로 바뀌어 소수민족 측의 의견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1933년에는 바이링카오(百靈廟)를 중심으로 하여 데왕(德王)을 추대하는 내몽골의 자치운동은 파동을 일으켰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몽골을 수차례 방문했던 판첸라마는 이 운동을 지지했다. 그때까지 수년간 판첸라마의 영향력을 중시한 국민정부는 명예를 표하는 칭호를 1931년, 1932년에 연거푸 보내 회유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판첸라마는 자치운동 측에 가담했다. 한편 쟡카 후토크토는 이전부터 판첸라마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옌시산의 지지를 얻어 난징(南京)에 ‘자금과 무기가 판첸라마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밀고 전보를 보냈다.<sup>28)</sup>

## 쓰촨성(四川省)에서의 중국의 정치 그리고 티벳의 국경

내외 몽골에서 응어리진 반한 감정은 티벳지구에서 근접한 쓰촨성(四川省)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태의 추이가 있었다. 1930년 근대 중국불교의 조사라고 말해지는 타이쉬(太虛) 대사는 쓰촨성의 사원단체로부터 초청 받아 포교를 위해 갔다. 대사는 열렬한 불교신자인 쓰촨성의 군장 류시양(劉湘)의 모친과 류시양 본인과도 친하게 되었다. 류시양은 그에게 쓰촨성내의 티벳족 지구인 파탕(Pha thang, 巴塘)과 리탕(Li thang, 裏塘)에서 확대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했다. 파탕과 리탕은 원래 티벳어 방언을 쓰는 티벳민족이 사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청 말기에는 많은 수의 공국(公國)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주요한 것으로, 데르게(sDe dge), 파탕,냐룽(Nyag rong), 참도(Chab mdo), 마르캄(sMar kham) 등이 있다. 그들 지역에서는 겔포(gryal po, 왕), 쉐포(dpon po, 장관), 라마(bla ma, 승僧) 등이 수장으로 되어 있었다. 1860년에냐룽이 서쪽의 데르게 방면에 침략한 일을 실마리로 하여 라싸 정부는 군을 파견하여 소동을 진압하고냐룽 및 그 부근도 라싸 정부의 통치지역으로 하게 되었다. 1894년에냐룽은 다시 이번에는 동쪽의 쓰촨성 부근의 다르체도(Dar rtse mdo, 打箭炉, 지금의 강딩康定)에 침입했다. 중국에서는 쓰촨총독이었던 루주양상(鹿傳霖)이 파병하여 진압했지만, 이때 중국군은냐룽보다 더 서쪽의 데르게까지 침입하여 데르게 왕위계승 싸움에 개입하게 된다.<sup>29)</sup> 1904년에 중국은 주창팡비엔대신(駐藏幫辦大臣)을 참도에 주재하도록 했고, 다르체도를 도청소재지로 하고, 파탕도 그

28) Yang Haiying and Uradyn E.Bulag, Janggiya Qutughtu: A Mongolian Missionary for Chinese National Identification, Mongolian Culture Studies V,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Culture and Economy of the Ordos Mongols (OMS e.V.), Cologne, Germany, 2003. ; 宮脇淳子, 『モンゴルの歴史』, 東京, 刀水書房, 2002.

29) Teichman, Sir E., *Travels of a Consular Officer in Eastern Tibet*, Cambridge, 1921; 水野勉訳, 『東チベット紀行』 (中国辺境歴史の旅3), 白水社, 1986.

의 임시 근거지로 되었다.

1905년에는 중국지배에 반대하는 과당의 승려들이 봉기했고,<sup>30)</sup> 진압되었다. 1908년에는 변무대신(邊務大臣)인 자오얼풍(趙爾豐)이 티벳 쪽의 테르게로 진군하여 참도, 다얍(Drag yab), 마르캄 등을 창두(昌都)·차야(察雅)·닝징(寧靜) 등으로 개명하여 중국의 지방 통치하에 두고자 했다. 1911년에는 자오얼풍이 쓰촨성총독으로 임명되어, 총독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갔다.<sup>31)</sup> 그러나 이때 본토에서는 중앙에서의 혁명의 영향으로 각지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1912년, 신중국군은 다시 티벳인지구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1914년, 영국이 끼어들어 체결된 중장(中藏)조약은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얼마간은 휴전하게 되었다. 1917년 쓰촨군통령인 팡리성(彭日升)이 휴전협정을 깨고 라싸에 진군하기 시작했는데, 티벳군이 이를 저지시켰다. 1918년에는 다르체도까지 거의 전지역을 티벳군이 지배했다. 여기서 다시 영국의 중개로 평화교섭이 이루어져, 과탕, 리탕, 냐룽, 칸제(dKar mdzes) 등 지구는 중국령으로 되고, 참도, 마르캄, 테르게 등은 티벳령으로 되었다. 1925년에는 이들 강변지구는 시강(西康)특별행정구로 되었고, 나아가 1928년에는 시강성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바로 불교승려 타이쉬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쓰촨성의 군장인 류시앙에게 자문을 받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남쪽 저 멀리 내몽골에서는 판첸라마가 이끄는 승려들의 저항운동이 있었다.

#### 일본으로부터 받은 영감, 중국 교육을 재편하다.

타이쉬대사가 중국 승려교육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18년이였다. 그는 『정리승가제도론(整理僧伽制度論)』을 발표하여 그 구상을 굳히고, 1924년에는 우한(武漢)에 우창불학원(武昌佛學院)을 설립하고 근대적인 교육제도 아래에서 승려들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있었다. 그 모델로 한 것은 그가 『정리승가제도론』을 지은 전년도 1917년에 방문한 교토의 류코쿠대학이였다. 우창불학원에 마련된 이수 커리큘럼 자체도 붓교대학(류코쿠대학의 당시 이름)의 과정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타이쉬 대사가 자전(自傳)에서 말하고 있다.<sup>32)</sup> 오타니대학도 타이쉬대사가 교토를 방문했던 해에는 이미 카미가모코야마의 현재 주소로 이전해 있었고, 당시의 학장은 난조봉유였다. 타이쉬대사는 이 교토의 불교계 대학을 시찰한 후, 학교 교육에 의한 불교학자 육성의 필요성을 확신했던 것이다.

한편, 1930년 쓰촨성 군장 류시앙의 상담에 응하면서, 타이쉬대사는 불교를 통하여 한족

30) 이 해, 이 반란에 휩쓸려 죽은 식물학자에 대한 기사가 E.H.M.Cox, *Plant-Hunting in China*, London, 1986. 에 있다. 또한, 金子民雄, 『東チベットの植物探検家』(小林書店, 1994)도 참조.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시기에 쓰촨성과 윈난성(雲南省)에 들어가 활약했는데 이 분쟁에 휩쓸려 죽은 인물도 많다. 다음은 그간의 사정을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Kingdon-Ward, *From China to Khamti Long*, London, 1924; Gregory J.W., *To the Alps of Chinese Tibet*, London, 1923; Kingdon-Ward, Frank, *The Mystery Rivers of Tibet*, London, 1923; 『青いケシの国』フランク・キングドン・ウォード』(ヒマラヤ・人と辺境 3), 白水社, 1975.

31) Eric Teichman, *Travels of a Consular Officer in Eastern Tibet*, pp.19-58, Elliot Sperling, "Chinese Venture in K'am 1904-1911 and the role of Zhao Erfeng," *Tibet Journal* 1.2(1976), pp.10-36 을 참조.

32) 太虚大師, 「我的佛教改進黨運動略史」太虚大師全書·文叢 6 (vol.29), p.93. 이 책에 있는 Luo Tongbing의 기고문도 참고할 수 있다.



과 장족(藏族)이 상호를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사는 한장교리원(漢藏敎理院)설립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류시앙의 후원을 받아 그것을 실시했다. 명예원장으로 타이쉬대사, 명예이사장으로 류시앙이 취임했으며, 실제 대리원장(代理院長)으로서는 한때 타이쉬의 지도제자였으며 당시 티벳 유학을 하고 있었던 파쭈(法尊, 1902-1980)이 요청받아 임하게 되었다.<sup>33)</sup>

파쭈는 ‘유장학법단(留藏學法團)’의 일원으로서 티벳유학을 했었다.<sup>34)</sup> 이 단체는 본래 베이징의 치인시(慈因寺)에서 파용(大勇, 1893-1929)이 설립한 티벳학 연구원인 장문학원(藏文學院)을 개조하여 설립한 단체였다. 모체인 장문학원은 민국13(1924)년 9월 13일, 파용이 티벳불교의 스승 도제계쇄(多傑格西, rDo rje dge bshes)존자<sup>35)</sup>를 티벳불교를 가르치는 법사로 하여 출발한 불학원(佛學院)이었다. 파용은 원래 타이쉬대사의 문인(1919년 출가)이었다. 그는 타이쉬대사가 설립한 우창불학원에서 같은 제1기생이었던 파쭈를 설득하고, 더하여서 관공(觀空, 1903-1989), 파강(大剛), 차오이(超一), 옌딩(嚴定), 후이중(會中), 파광(法舫)을 이 티벳학 연구원의 일원이 되도록 설득했다. 그들 중 몇몇은 후에 파쭈와 함께 한장교리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유장학법단을 조직한 파용은 일본 코야산(高野山)대학에서 1922-23년에 걸쳐 유학했던 경험이 있다. 그의 유학 목적은 중국에서 거부된 밀교의 전통을 일본의 진언종으로부터 역으로 유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목적 아래, 파용을 비롯하여 치송(特松, 1922-1924 일본 유학), 시엔인(顯蔭, 1923-24 일본 유학), 탄슈엔(談玄) 등이 파용 전후로 일본에서 유학했다.<sup>36)</sup> 일본에서는 이미 그 시기에 카와구치에카이와 아오키분교(青木文教, 1886-1956)가 귀국해 있었으며, 1920년 아오키는 『서장유기(西藏遊記)』를 완성했다. 아오키가 특별히 잘했다고 하는 이른바 ‘티벳학’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었지만, 불교학 분야의 하나로써 티벳어역 불전의 연구는 이 시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교토에서는 이미 데라모토엔가(寺本婉雅, 1872-1940)가 1915년에 오타니대학 교수로 취임하여 티벳어학, 불교학을 담당하고 젊은 불교학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파용은 192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모교인 우창불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밀교의 연구를 계속했다. 몽골인인 바이푸렌(白普仁, 1870-1927)라마와 위의 도제계쇄로부터 배운 티벳불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장문학원을 설립하고, 나아가서는 티벳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 티벳 유학, 그리고 티벳의 승원체제

20명 정도로 구성된 유장학법단은 1925년 6월 4일에 청두(成都)를 출발하여, 다르체도에 있는 안주에시(安覺寺, Dar rgyas dgon)에 체재하면서 티벳어를 습득했다. 그들의 규칙을

33) 羅同兵, 「漢藏敎理院史略」 『法音』, 2001년 8월, pp.26-34. 이 책에 있는 Chen Bing의 파쭈에 대한 글도 참고.

34) 釋東初, 『中國佛教近代史』 (東初出版社, 民國63年刊)의 제17장 제6절 「入藏求法之漢僧」 및 제7절 「漢藏文化之溝通」 (pp.441-457) 참조. 또한 Chen Bing의 기고문도 참고.

35) 同書 p.447 에서는 그의 이름을 多傑葛巴格西(rDo rje rgyal po dge bshes?)로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菩提道次第略論序」 太虛大師全書·雜藏·文叢 (vol.30 ,p.780)에서는 多傑覺拔格西 (rDo rje gcod pa dge bshes?)라고 되어 있다.

36) 樓宇烈, 「中日近現代佛教交流概述」 『中日近現代佛教的交流與比較研究』 樓宇烈編, 宗教文化出版社, 北京, 2000. pp.9-11.

보면, 불교와 관계없는 한어 잡지와 서적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경전 종류까지 포함하여 티벳어 서적류만을 읽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1년간의 어학연수 후에 그들은 다르체도보다 더 서쪽의 캅제로 이동했다.

이때까지 유장학법단을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화북의 거사들이었는데, 1926년에 정국이 바뀌어 학자금이 점차적으로 고갈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생활은 각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궁지로 더욱 몰아붙이게 했던 것은 단장 따용이 캅제 체제 중, 1929년 8월 10일 캅제 부근의 짜지에시(扎迦寺, dar rgyas dgon)에서 급사한 일이었다. 그의 나이 37세, 법랍 10년이였다. 따용이 죽은 후, 파쭈과 랑찬(朗禪) 및 창광(常光)은 초기의 목적지였던 라싸로 향하여 말을 타고 참도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1년 체재하여 티벳 불교의 여러 가지를 학습했다. 그 후, 1930년 3월 29일 도보로 라싸로 향하여 출발, 4월 24일에 도착, 그 후는 라싸 근교의 겔룩(dGe lugs)과 승원에 분산하여 소속되게 되었다. 유장학법단의 다른 단원 중에, 관공, 따깡, 차오이, 옌딩, 미홍(密呷), 미옌(密嚴), 미후이(密慧), 미지(密字)는 그대로 캅(Kham, 시캉西康) 지방에 머무르며 티벳 불교를 학습하고, 약 10년 후인 1935년까지 티벳지구 안에 체재하고 있었다. 미유(密語)는 중공(中共)이 티벳으로 침략해 온 후에도 티벳에 체재했다고 전해진다.

라싸에 도착한 파쭈(티벳어: rGya bla ma blo bzang chos 'phags)은 라싸 근교의 데붕('Bras spungs) 승원에 있는 로셀링(Blo gsal gling) 타창(grwa tshang, 학당)에 소속했다. 로셀링 학당에는 20개소 이상의 캅첸(khams tshan, 지방기숙사)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캅첸에 머물면서 타창에 속한 진다('dzin grwa, 학급)에 다니며 공부했다고 생각된다.<sup>37)</sup> 본래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에서 가르치던 왕야오(王堯) 교수에 의하면, 파쭈는 로셀링 학당에서 게쉼(dGe bshes, 中. 格西)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리우유타오(劉雨濤)씨와 같이 이것을 의심하는 학자도 더러 있다. 리우유타오씨에 의하면 당초 게쉼위(位) 취득에 의욕적이던 파쭈이었지만, 그보다 번역의 중요성을 깨달아 단념했다고 한다. 유장학법단 중에서 게쉼위를 취득한 것은 미유뿐이었다고 리우유타오씨는 말한다. 그의 의심은 파쭈의 라싸 체재 기간이 짧았던 데에 대해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38)</sup>

이 파쭈의 체재보다 앞서 10년 전에는 일본인 게쉼이 기록되고 있다. 타다토칸(多田等觀, 1890-1956)이다. 타다토칸의 티벳유학은 일본인 티벳행의 선구자 카와구치에카이가 입국한 후, 10년 뒤의 일이지만,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은 선구자들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카와구치에카이와 아오키분쿄는 오로지 대장경수집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게다가 카와구치는 티벳 국내에 잔존하는 범어사본에도 주목하고 있었던 듯하다. 카와구치는 일본 근대불교학의 선구자였던 난조봉유가 은사 막스뮐러로부터 '.....[Go] to Tibet to look for Sanskrit MSS. Do not forget that at some later time you might do something useful by going Tibet through China.....'<sup>39)</sup>라고 권해졌던 일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카와구치에게 있어서 티벳에 잔존하는 '불교학의 자료'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카와구치에카이가 처음에 라싸에 간 것은 1901년 4월이었는데, 같은 달에는, 다리(大理, Yunnan)에서 스승인 난조봉유 편으로 편지를 보낸 후 소식이 끊어진 노미유타카의 동기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sup>40)</sup> 또한 소식을 끊은 노미와 함께 파탕까지

37) Onoda Shunzō, *Monastic Debate in Tibet*,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Heft 28, Vienna, 1992, p.16.

38) 劉雨濤, 「太虛大師與藏傳佛教」太虛誕生一百周年國際會議, (香港, 1988) 발표논문.

39) 『南條先生遺芳』, 南條文雄著作選集, 第10卷, Letters from Dr. Max Muller, letter no. 76 (30 July 1884).

40) 江本嘉伸, 『能海寬--チベットに消えた旅人』求龍堂, 1999.

가서 그 후, 베이징의 황시(黃寺)와 지푸시(資福寺)에서 염원했던 깡규르와 덴규르를 입수하여 일본에 가지고 돌아온 테라모토엔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마도 타다토칸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티벳불교의 전통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일 것이다. 즉 근대불교학에 필적할 만한 정교한 불교학과 그것을 전하는 교육 제도가 티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타다토칸의 티벳 체재는 1913년 9월부터 1923년 2월까지 10년간이었다. 소속해 있던 타창은 세라(Se ra)승원의 체파(Byes pa) 타창으로, 캄첸은 하르동(Har gdong)기숙사였는데, 타창의 전과정을 3년에 끝내고, 타창 내의 시험에 합격하여 첸제(chos mdzad)의 호칭을 얻었다. 기초적인 힘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이러한 정규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과쥘의 게췌위 취득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타이쉬대사는 과쥘이 그 후 저술한 『현대서장(現代西藏)』의 서문에서, 과쥘을 ‘과쥘게췌(法尊格什)’로 부르고 있다.<sup>41)</sup> 티벳승원의 교육제도에 대한 타이쉬대사의 지식은 정확했으며, 민국32년에 지은 「서장문제지적당해결(西藏問題之適當解決)」에서 이 ‘게췌(格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게췌위를 얻은 사람은 마치 공생, 거인, 진사와 같다(其考得第三, 第二, 第一等格什, 則猶貢生, 舉人, 進士也).’<sup>42)</sup>라고 하였고, 나아가 그 학위제도의 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라싸체재 5년 후(민국23년) 과쥘은 타이쉬대사로부터 쓰촨성에 설립된 ‘한장교리원’의 대리원장 취임을 요청받아 캄지방에서 유학을 계속하고 있었던 관룽, 옌딩과 함께 쓰촨에 돌아와 ‘한장교리원’에서 지도하게 된다. 한장교리원은 보통반과 전수과(專修科) 2부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각각 4년과 2년으로, 오늘날의 학부와 대학원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sup>43)</sup> 과쥘 등은 한장교리원의 수업을 위해 많은 티벳 선술문헌과 티벳어역으로부터의 경·논·전의 한역<sup>44)</sup>을 출판했다. 예를 들면, 총카파(Tsong kha pa)의 『보리도차제광론(菩提道次第廣論)』(Lam rim chen mo, 과쥘역)<sup>45)</sup>과 『보리도차제약론(菩提道次第略論)』(sNgags rim chen mo)<sup>46)</sup>, 『보리도차제약론(菩提道次第略論)』(Lam rim bsdus don, 따용역)<sup>47)</sup>, 『입중론(入中論)』(Madhyamakāvātara)과 『현관장엄론(現觀莊嚴論)』(Abhisamay-ālaṃkāra-nāma-prajñāpāramitopadeśa-sātra)등이다. 또한, 티벳어에는 번역되지 않고 한역만이 남아있는 경·논·전,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Sk. Abhidharma-mahāvibhāṣā-śāstra, Tib. Bye brag bshad mdzod chen mo) 등의 티벳어역에도 착수했던 것 같다.<sup>48)</sup> 장한교리원에서는 예를 들면, 고망 룡뵘 게췌췌답감초(sGo mang Klu 'bum dGe bshes Shes rab rgya mtsho, 1908-1968, 시라오대사喜饒大師, 1938년 내원來院<sup>49)</sup>) 등 저명한 티벳의 학승을 객원으로서 초대하여 연구를 더욱 심층화 시키기도 했다. 왕야오

41) 「現代西藏序」, 太虛大師全書·雜藏·文叢vol.30, p.875.

42) 「西藏問題之適當解決」, 太虛大師全書·雜藏·時論vol.24, p.277.

43) 「漢藏教理院與佛教文物展覽會」, 太虛大師全書·雜藏·酬對vol.27, p.840.

44) 釋東初「中國佛教近代史」下卷, pp.993-995.

45) 法尊, 『菩提道次第廣論』(重慶, 1936; repr. 台北, 1975); 「菩提道次第廣論序」太虛大師全書·雜藏·文叢 vol.30, p.777.

46) 法尊, 『密宗道次第廣論』(北京, 1942; repr.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1994); 「密宗道次第序」太虛大師全書·雜藏·文叢 vol.30, p.782.

47) 大勇·法尊, 『菩提道次第略論』(重慶, 1936; repr. 台北, 1975); 「菩提道次第略論序」太虛大師全書·雜藏·文叢 vol.30, p.780.

48) 「藏漢大辭典」(p.1892) 에 이 번역에 대한 언급이 있다.

49) 「從溝通漢藏文化說到融合漢藏民族」, 太虛大師全書·雜藏·時論 vol.24, p.182. ; 그의 약력에 대해서는 「喜饒嘉措文集(藏文版)第一卷」, 青海民族出版社, 1982.의 서문을 참조.

교수에게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돌린포체(sDom 'bum rin po che)와 노르라린포체(Nor lha rin po che, 누오나상사諾那上師) 또는 툽텐라마(Thub bstan bla ma) 등도 초청했다고 한다. 한장교리원의 활동은 1950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 근대불교학에로의 영향

타이쉬대사와 범존등의 티벳불교학에 대한 태도는 그 체계를 그 체계자체로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또한 정당하게 학문체계로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대와 정치체제는 그것을 지속시켜주지 않았다. 불교사상의 연구에 티벳의 전통적불교학을 이용해야한다는 생각은 그 반세기정도 전에 서구의 불교 연구자로부터 생겨왔다. 즉 연구대상이 아닌, 불교사의 일환으로서 티벳 소전(所傳)의 불교학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의 정통성은 W. Wassiliew, Th. Stcherbatsky 박사, 그리고 E. Obemiller 박사 등의 Leningrad학파의 연구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잠양쇄파('Jam dbyang bzhad pa, 1648-1721), 겐찰다르마린첸(rGyal tshab Dar ma rin chen, 1364-1432), 그리고 다른 전통 티벳 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연구에 충실했다. 나아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의 성과로, 여래장사상에 관한 Dr. D. Seyfort Ruegg 박사의 연구 성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연구를 가장 밑바닥부터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티벳의 전통적 의론, 예를 들면 푸툰린첸툽(Bu ston rin chen grub, 1290-1364)의 연구성과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미마키카즈미(御牧克己) 교수 등에 의해 비약적으로 진전한 인도불교사상의 연구에 잠양쇄파 등의 둠타(Grub mtha', 종의宗義) 문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Van der Kuijp 교수와 Tom Tillemans 교수의 성과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인도불교논리(인명因明)학의 연구에 티벳 선술의 연구서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sup>50)</sup>

메이지유신이 당시의 일본의 불교계에 미친 타격은 불교 근절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었던 중대한 것이었으나, 그에 의해서 도출된 위기의식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강한 개혁의지는 일본의 불교계를 되살렸다. 그리고 그 모습은 또한 동일한 위기에 직면했던 대륙의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국의 일부 불교학자들은 함께 티벳어역 불전의 연구가 근대 불교학의 중요한 요소임을 일찍부터 인식했고, 일부 연구자들은 티벳불교의 승원교육제도에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

50) E.Overmiller, The doctrine of Prajnaparamita as exposed in the Abhisamayalamkara of Maitreya, Acta Orientalia, vol XI, 1932; Th.Stcherbatsky, Buddhist Logic, Bibliotheca Buddhica, XXVI, 1932, etc.; D.Seyfort Ruegg, Le Traite Du Tathagatagarbha De Bu Ston Rin Chen Grub, Paris, 1973, etc.; Katsumi Mimaki, La Refutation Bouddhique De La Permanence Des Choses Et La Preuve De La Momentaneite Des Choses, Paris, 1976; K.Mimaki, Blo Gsal Grub Mtha', Universite De Kyoto, 1982, etc.; Tom J.F.Tillemans, Scripture, Logic, Language, Wisdom Publications, Boston, 1999; Georges B.J.Dreyfus, Recognizing Reality, New York, 1997, etc.

